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김 경 미¹⁾

정 옥 분²⁾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인 연인관계 유능성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국외 척도 및 문헌을 고찰하였고, 우리나라의 연인관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았으며,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지각을 알아보고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예비문항은 문헌연구와 인식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10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3문항으로 수정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해 척도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문항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요인분석과 내적 합치도, 반분신뢰도를 구하였다. 또한, 61명의 자료를 가지고 재검사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내용타당도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 하위요인은 관계효능감(9문항), 관계유지행동(9문항), 갈등관리행동(8문항), 불안감해소(6문항)로 정리되었다. 둘째,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합치도, 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통해 바람직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셋째, 연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결과, 연인관계 유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낭만적 애착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 연인관계 유능성, 청년기, 척도개발

* 본 연구는 2016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1)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시간강사

2) 교신저자 :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명예교수 (E-mail: obchung@korea.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우리나라의 배우자 선택 양식은 ‘친밀성의 혁명’이라고 묘사할 만큼 크게 변화하였다. 가족의 근간이 가문이나 문중을 강조한 부자관계에서 낭만적 사랑으로 형성된 부부관계로 전환되면서 결혼에 있어 사랑이 중대한 가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은 낭만적 사랑을 통해 이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성관계에 대처하는 행동 양식을 습득하며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질을 터득한다. 그러나 낭만적 사랑을 나누는 이성관계는 매우 복잡 미묘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긍정적 정서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를 복합적으로 느끼며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는 내면적으로 깊숙이 침투되는 만큼 서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서 사소한 오해나 의심으로도 관계가 쉽게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연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신념이나 행동, 그리고 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Conger, Cui, Bryant, & Elder, 2000).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필요하다(권석만,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개념 중 하나가 ‘연인관계 유능성(romantic competence)’이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국내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긴 하

지만, 국외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연구가 수행되었다. Davila와 동료들(2009)에 따르면, 연인관계 유능성이란 연인과의 관계경험을 통해 사려 깊고 통찰력 있게 사고할 수 있고, 자신 및 연인을 존중하며, 연인에게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는 자신을 성공적으로 조절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하는 것은 연인 간의 행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연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예방할 수 있다. 연인관계 유능성은 대인관계 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보편적 상황에서 일반적인 타인들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대인관계 유능성과는 차별화되는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다(Davila, 2010). 연인관계는 제 3자의 개입이 용납되지 않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두 사람만의 관계이다. 또한, 매우 강렬한 감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접촉과 성적인 친밀감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체험하면서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기도 한다. 이처럼 연인관계는 다른 인간관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보이므로(권석만, 2010) 연인관계에서 필요한 능력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인관계 유능성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국외에서는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및 관련된 도구가 개발된 바 있다. 먼저 Harter(1988)의 청소년용 자기인식 프로파일(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SPPA]) 하위 요인 중 성적이고 낭만적인 매력 요인을 설명하는 5개 문항을 사용하여 연인관계 유능

성을 측정하는 방법(Connolly & Konarski, 1994; Dougherty, Lam, Stanik, & McHale, 2015)이 있다. 그러나 SPPA는 성적이고 매력적인 외모에만 국한하여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Groer, Nangle과 Zeff(2005)가 개발한 MAHC(Measure of Adolescent Heterosocial Competence)는 자신과 반대의 성별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유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그러나 MAHC는 연인뿐만 아니라 가벼운 친구사이 및 우정관계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측정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또한, Bouche(2007)의 RSC-Q(Romantic Self-Concept Questionnaire)에서는 매력적인 외모, 성적 경험에 대한 자신감, 의사소통, 관계유지, 사랑의 균형 이루기, 연인에 대한 수용의 6가지 요인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RSC-Q는 척도개발 과정의 체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타당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Davila와 동료들(2009)이 개발한 RCI(Romantic Competence Interview)는 청소년의 낭만적 사랑에 대한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의 척도이다. RCI에서는 이성교제 빈도 및 지속기간, 연인의 특성 파악, 연인과 함께하는 활동, 연인관계의 질, 연인관계에 대한 인지 및 정서적 반응 등의 5가지 요인에 근거하여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RCI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형식이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대한 객관성 확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표준화된 척도보다 금전적·시간적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는 불편함이 있으며, 척도개발 시 여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Shulman, Davila와 Shachar-Shapira(2011)가 수정한 R-RCI(Revised Romantic Competence Interview)에서는 교제경험 및 지속기간, 연인관계에 대한 사회인지적 인식의 성숙도, 연인관계 및 연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일관성의 4가지 요인을 토대로 연인관계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R-RCI에서는 낭만적인 사랑을 생각, 사고, 느낌, 행동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으므로 연인관계 유능성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여자 청소년만을 표집하였고, 이스라엘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성별 및 문화적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Epstein과 동료들(2013)이 개발한 애정 유능성 척도(Epstein Love Competencies Inventory [ELCI])는 의사소통, 갈등해결, 연인에 대한 지식,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 자기 이해 및 관리, 성적 능력, 스트레스 관리의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ELCI는 애정 유능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연인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을 포함함으로써 그동안 연인관계 개선을 위해 집중되었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 기술 이외에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재 연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치료 중인 상태이거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었으므로 연구대상의 일반화에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상의 국외에서 개발된 선행척도를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연인관계 유능성은 매력적인 외모와 같은 한 가지 특정요인에서 자기이해 및 연인이해, 그리고 관계기술과 같이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며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행척도에 따르면, 의사소통 방식이나 갈등해결, 관계유지처럼 연인과 원만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기술뿐만 아니라 연인 및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연인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선행척도들은 연구대상의 일반화나 척도개발 과정 및 측정방식 등의 한계점이 제기되었다. 더욱이 연애를 하는 양상이나 사랑 및 연애에 대한 태도는 각 문화마다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외의 척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문화 및 가치관 차이에 관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지금까지 연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원가족 경험 및 성장과정, 그리고 개인의 성격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따뜻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성장한 사람은 연인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이며 적대감을 거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Cui, Bryant, & Elder, 2000), 개인의 성장과정은 성인이 되었을 때 연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쳤다(Donnellan, Larsen-Rife, & Conger, 2005). 반면, 이혼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연인관계 유능성이 낮았고, 이것은 연인관계에 대한 태도 및 행동, 그리고 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hulman, Zlotnik, Shachar-Shapira, Connolly, & Bohr, 2012). 따라서 원가족 경험, 특히 부모와의 친밀한 상호작용은 연인관계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한 개인에게 있어

이후의 삶과 대인관계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다(이운기, 2006).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질에서 중요시되는 개념 중 하나가 애착인데, 사랑은 애정적인 유대로서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에 기초를 두고 있다(이윤영, 전효정, 2009). 성인기의 애착유형은 영아기 및 아동기의 애착유형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며, 성인기의 주요한 애착대상은 낭만적 사랑을 하는 연인이다(Paetzold, Rhoades, & Kohn, 2015). Hazan과 Shaver(1987)에 따르면, 생애 초기에 주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하였다면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사랑을 하는 연인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낭만적 애착과 연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정서이해 능력, 공감 능력, 사회성, 친사회적 행동 및 공격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억이나 추론 능력과 같은 인지적 측면, 그리고 의사소통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곽금주, 2010). 이러한 차이는 남녀로 하여금 사랑을 할 때 서로 다른 기대 및 성향을 가지게 한다. 이는 남녀의 사회화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연인관계 유능성은 성장과정 속에서 사회화 과정으로 형성되는 개인적 특성 및 연인관계 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개념이므로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성차는 연인관계 유능성에서의 성차를 예측하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인관계 유능성 연구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거나(Davila et al., 2009; Shulman, Davila, & Shachar-Shapira, 2011; Shulman, Zlotnik, Shachar-Shapira, Connolly, & Bohr, 2012), 성차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특히 결혼 이전 시기인 청년기를 대상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행된 낭만적 사랑을 하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연구영역도 결혼생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년기는 결혼 이전에 낭만적 사랑을 하며 배우자를 탐색하는 시기로서(Berscheid, 1999; Feldman, Gowen, & Fisher, 1998) 청년기의 친밀한 관계는 이후 커플관계의 형성 및 유지뿐 아니라 결혼만족도를 예측해 주며, 교제기간 중 갈등수준은 결혼 후 적응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이지연, 서수균,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및 관련 변인 연구로 나누어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에서는 배우자 선택 및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년기(Collins & Sroufe, 1999; Furman & Wehner, 1994)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 및 문화가 반영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사랑을 다차원적인 구성요인으로 보는 견해에 따라(Hatfield & Sprecher, 1986), 연인관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파악하여 연인관계 유능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연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연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파악하고, 낭만적 애착과 연인

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애착 이론 관점을 바탕으로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1-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1-2.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타당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1-3.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관련 증거들은 적절한가?

연구문제 2.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

2-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371명이다. 연구대상 대학생은 지금까지 이성교제를 최소 1번 이상 경험한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본 척도는 실제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71)

변인	구분	대상자수 (명)	백분율 (%)
성별	남	176	47.4
	여	195	52.6
연령	19~20세	78	21.0
	21~22세	128	34.5
	23~24세	99	26.7
	25~26세	50	13.5
	27세 이상	16	4.3
교제	예	168	45.3
여부	아니오	203	54.7
교제 횟수	1~3회 미만	183	49.3
	3~5회 미만	104	28.0
	5~7회 미만	58	15.6
	7~9회 미만	8	2.2
	9회 이상	18	4.9
지역	서울	86	23.2
	경기	95	25.6
	대전	108	29.1
	부산	82	22.1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실제 연애평형에 비추어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개발을 위해 5단계로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의 구인탐색과 추출 및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위한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를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먼저,

연인관계 유능성 및 연인관계 관련 척도, 연인 및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낭만적 사랑 및 이성교제에 대한 사회문화적 특성과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에 앞서 5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인식조사에서 사용할 개방형 질문지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 받았다. 이후 서울특별시 소재 위치한 대학교의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8월 5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조사에서 회수한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자료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89명이었다.

2단계에서는 문헌고찰 및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예비문항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1차 검토에서는 5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척도문항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예비문항 중 의미가 중복된 것은 삭제하였고, 문장표현 방식이 어색하거나 모호한 것은 보완하였다. 또한, 척도의 구성요인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문항추가가 이루어졌다. 2차 검토에서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아동학 및 가족학, 가족자원관리 전공 교수, 상담사, 연구원, 연구교수 등 11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을 통한 내용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였다.

3단계에서는 본조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예비문항 질문지의 설문 소요시간과 척도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문항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

고자 2015년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서울 특별시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대학생 8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학생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연애평험이 1회 이상 있어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고,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또한, 질문지 작성 중 문항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유롭게 질문해도 된다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질문을 제기하는 학생은 없었으며, 학생들은 집중력을 보이면서 조사에 응하였다.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0분 내외 정도이었다.

4단계는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안내하였고, 설문조사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가 이루어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에서 회수된 질문지 중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것(13부), 중간에 응답을 그만 둔 것(9부), 패턴식으로 응답한 것(11부), 개인정보가 누락된 것(7부), 연애평험이 0회인 것(39부) 등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371명이었다.

5단계에서는 2015년 11월 6일 서울에 위치한 1개 학교 6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재검사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주 뒤에 동일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질문지를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서 2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조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수업시간에 배부하여 그 자리에서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과 관련하여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한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각 문항 응답을 이용한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내적 합치도를 고려하여 문항양호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절성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통계치를 산출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지를 확인하였다.

요인분석은 공통요인모형에서 단일주축 분해법을 사용하였고, 공통성(communality)의 초기값은 중다상관제곱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로 사용하였다. 요인구조의 회전은 요인 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사각회전방식 중 promax를 선택하였다. 적합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카이저 방법, 스크리 검사,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요인 간의 관련성과 요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내적 합

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 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이상의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2.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

연구대상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와 낭만적 애착 척도를 이용해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와 동일하게 이성교제 경험이 최소 1번 이상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연인관계 유능성이란 실제 자신의 연애경험을 통해 파악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65$)

변인	구분	대상자수 (명)	백분율 (%)
성별	남	140	52.8
	여	125	47.2
연령	19~20세	73	27.5
	21~22세	44	16.6
	23~24세	81	30.6
	25~26세	38	14.3
	27세 이상	29	10.9
교제	예	122	46.0
여부	아니오	143	54.0
횟수	1회	46	17.4
	2회~3회	101	38.1
	4회~5회	66	24.9
	6회~7회	20	7.5
	8회 이상	27	10.2
	모름	5	1.9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측정도구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앞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한 내용타당도의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한 것이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관계효능감, 관계유지행동, 갈등관리행동, 불안감해소의 4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고(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 점수가 높을수록 각 영역에서의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는 .91, 재검사신뢰도 .86, 반분신뢰도 .82로 나타났다.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 척도.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성현(2004)이 번안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문항반응을 통하여 타당화한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Experience of Close Relationships-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8문항씩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로 평정하였고,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애착을 의미하는 반면, 각 차원의 점수가 낮을수록 연인과의 관계에서 안정적인 애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불안차원 .89, 회피차원

.85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모두 .91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관련 변인 연구를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3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회수하였다.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고 연애경험이 0회인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태도로 흔쾌히 조사에 응하였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정도이었다. 관련 변인 연구의 조사에서 회수된 질문지 중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것(3부), 질문지 작성 중간에 응답을 그만 둔 것(11부), 패턴식으로 응답한 것(14부), 개인정보가 누락된 것(4부), 연애경험이 0회인 것(3부) 등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265명이었다.

자료분석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청년기 연인관계 유능성의 각 하위요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분석은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구성요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구인탐색과 추출 및 예비문항의 구성을 위하여 연인관계 유능성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고찰과 국외에서 개발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및 관련 척도를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그리고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낭만적 사랑 및 이성교제에 관한 사회문화적 특성 및 가치관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89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 및 인식조사를 종합하여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예비문항을 3가지 측면에 입각하여 총 9가지 요인, 10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즉, 사랑을 하는 연인관계의 유능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측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연인관계의 인지적 유능성을 ‘사랑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기이해’, ‘연인에 대한 이해’로, 연인관계에 대한 정서적 유능성을 ‘연인에 대한 수용 및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으로, 연인관계에 대한 행동적 유능성을 ‘자기관리’, ‘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 ‘관계 유지 및 발전기술’, ‘갈등해결’로 세분화시켰

다. 이러한 9가지 구성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사랑 및 연인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둘째, 자기이해는 자율성을 획득하고 있고, 자신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며, 자신과 잘 어울리고 적합한 상대를 선별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연인에 대한 이해는 연인의 성향 및 기호, 고민, 기분 등 자신의 연인과 관련된 정보 및 이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연인에 대한 수용 및 친밀감은 사랑하는 사람을 수용하고, 정서 및 감정적 지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맺어져 있다고 느끼고, 함께 있을 때 행복하며, 연인을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서적 안정감은 이성교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인 및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 자기관리는 상대에게 호감을 주고, 이성을 매혹시키는 매력적인 속성과 외모를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생활을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일곱째, 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매너는 연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연인에게 충실하고 정성을 다하며, 연인의 요구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다. 여덟째, 관계유지 및 발전기술은 연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으며, 서로 만족스럽게 관계를 유지하고, 진지한 자세로 비교적 장기간 동안 연애를 하며, 자기노출을 비롯한 응집력 있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아홉째, 갈등해결은 연인관계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서로의 욕구를 반영하여 평화로운 방법으로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 해

결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타당도

내용타당도. 연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국내외 문헌 및 관련 척도 고찰과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인식조사에 기초하여 구성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예비문항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1차 검토는 5명의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척도 문항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문항의 질문방식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기술되었는가, 연인관계 유능성 예비 구성개념에 따라 문항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추가시켜야 할 문항은 없는가 등에 대해 확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예비문항 중 의미가 중복된 것은 삭제하였고, 하나의 문항에서 두 가지 측면을 묻는 질문은 한 가지 측면만을 묻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하지 않는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서술된 문장표현 방식은 만일 응답자가 부정으로 대답하는 경우에, 이중 부정으로 인하여 응답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긍정적인 서술이 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연인관계 유능성의 예비 구성요인 중 연인관계의 정서적 측면에서 연인에 대한 친밀감이 결여 되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이에 대한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일부 문항이 보완 및 수정되고, 삭제되거나 추가되어 100문항으로 시작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예비문항은 1차 검토 후에 93문항으로 정리되었다.

2차 검토는 아동학, 가족학, 가족자원관리 전공 교수 5명, 시간강사 2명, 상담사 1명, 연

구원 및 연구교수 3명으로부터 2015년 8월 31일부터 9월 8일까지 변형된 델파이방법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델파이방법은 교육 및 현장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수용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여 내용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내용타당도를 검증한 전문가집단은 교육경력이 최소 10년 이상인 대학교수 및 시간강사로 결혼과 가족, 청년발달 등에 관한 오랜 교육경력을 통해 학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담사와 연구원 및 연구교수는 대학과 연구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하고 연구하는 전문가이므로, 학식뿐만 아니라 현장경력을 통한 식견을 바탕으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문항을 검토하기에 적절한 전문가 집단으로 사료된다. 델파이방법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의 특성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 델파이방법에 참여한 전문가집단 목록

번호	교육경력 (년수)	최종학위	분야
1	36	박사	대학교수
2	27	박사	대학교수
3	25	박사	대학교수
4	15	박사	대학교수
5	10	박사	대학교수
6	12	박사수료	연구원
7	11	석사	상담사
8	30	박사	시간강사
9	25	박사	시간강사
10	10	박사	연구교수
11	11	박사	연구교수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예비문항에 대한 델파이방법의 응답방식은 각각의 문항이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 ‘중요하지 않다(1점)’, ‘보통이다(2점)’, ‘중요하다(3점)’의 3점 리커트식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선행연구(박연정, 2008; Kim, Lee, Suen, & Lee, 2003)에 의하면 3점 리커트식 델파이방법을 사용할 경우 평균 점수가 2점 이하인 문항은 전문가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으로 간주하고 삭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평균점수가 2점 이하의 경우가 한 문항도 발견되지 않아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전문가 집단 간 합의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델파이방법은 동일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보통 3회 이상 반복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1회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 간 상당 수준 의견 일치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구성타당도. 두 차례의 검토를 통해 내용타당도가 확보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예비척도(93문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구성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문항제거 시 내적 합치도를 중심으로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대도수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문항, 평균이 너무 높은 문항(평균 4.3이상), 문항-전체 상관이 낮은 문항(.3이하), 문항제거 시 내적 합치도가 높아지는 문항(Cronbach's $\alpha = .93$ 보다 큰 것) 등 26문항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수리적인 결과에만 근거하여 문항을 삭제할 경우, 연구자가 처음 상정한 예비 구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수리적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에 대한 개념적 중요성을 검토한 후 19문항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문항양호도에 대한 검증결과로 선정된 74문항이 요인분석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KMO)의 표본적 절성 측정치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KMO 수치는 .904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p < .001$ 로 요인분석이 가능한 공통요인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잠재적인 공통요인을 파악하고 적도 구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모형은 공통요인모형에서 단일주축분해법을 사용하였다. 요인구조의 회전은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것을 가정하여 promax 방식으로 하였다. 그리고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카이제 방법,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카이제 방법은 고유치 1.00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되는 것을 요인수로 정한다는 것이나 많은 경우에 요인수를 과소 또는 과대 추정할 수 있다(Tabachnick & Fidell, 1989).

표 4.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문항의 요인분석 후 고유치 및 설명분산

요인	고유치	고유치 차이	설명 분산	누적 설명분산
1	16.768	13.132	21.777	21.777
2	3.636	0.214	4.721	26.498
3	3.422	0.493	4.445	30.943
4	2.929	0.948	3.804	34.747
5	1.981	0.152	2.573	37.321
6	1.829	0.157	2.375	39.695
7	1.672	0.118	2.171	41.866
8	1.554	0.086	2.018	43.884

본 연구에서도 고유치가 1.00이상이 되는 요인의 수가 19개로 나타나 이를 요인수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누적분산비율, 스크리 검사 결과, 해석가능성을 참고하였다. 고유치와 각 요인의 설명분산을 제시한 표 4를 살펴보면, 4요인과 5요인 사이의 고유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누적분산비율은 4요인까지에서 전체분산의 34.75%를 설명하고 있다. 또한 스트리 검사 및 해석가능성을 고려해 본 결과, 요인수는 4가 적절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요인수는 4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수를 4로 지정한 후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수를 4로 지정하여 1차 요인구조를 산출한 후, 각 요인 내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17문항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57문항을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2차 요인구조를 산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과 두 요인 이상에 걸쳐 비슷한 요인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해석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 등 22문항을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추출된 35문항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요인부하량이 .30미만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 해석차원에서 다른 문항과 어울리지 못하는 문항 등 3문항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32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4요인의 총 설명분산은 44.56%로 나타났다으며, 사각회전 후 산출된 최종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은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각 요인에 대한 명칭은 해당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이 척도의 예비문항 선정 시 이론적 개념으로 정한 예비 구성요인 중 어느 것에 속하는가를 참고하여 명명하였다. 또한, 한 요인 내에 예비문항 선정 시 정한 여러 가지 예비 구성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이들 문항의 저변에 잠재된 공통요인의 개념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명명하였다. 4요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 1요인은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26.86%를 설명하고, 예비문항 선정 시 연인이해와 관계유지 및 발전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이성교제를 할 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연인과 관련된 정보 및 이성에 대한 파악 능력을 의미하므로 '관계효능감'이라고 명명하였다.

둘째, 제 2요인은 9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7.62%를 설명하고, 예비문항 선정 시 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태도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연인에게 관심을 갖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대하며 연인관계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관계유지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셋째, 제 3요인은 8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5.33%를 설명하고, 예비문항 선정 시 관계유지 및 발전기술과 갈등해결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연인을 존중하고 연인간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며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에는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갈등관리행동'이라고 명명하였다.

넷째, 제 4요인은 6문항으로 전체 변량의 4.74%를 설명하고, 예비문항 선정 시 정서적 안정감과 자기이해에 대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연인관계 및 연인을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으며 행복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안감 해소'라고 명명하였다. 제 4요인은 연인관계 유능성의 나머지 하위요인들과 다르게 역채점하는 문항들로만 이루어졌다. 제 4요인의 문항들을 살펴보면, 연인관계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고, 연인에 대한 확신이 없어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동요되며, 연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뿐만 아니라 연인과 편안하게 데이트 하지 못하고 부담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해결하고 없앨 수 있어야 하므로 제 4요인을 '불안감해소'로 명명하였다.

이상의 4요인의 전체 설명량은 44.56%이었고, 제 1요인인 관계효능감은 연인관계 유능성의 인지적 측면, 제 2요인인 관계유지행동과 제 3요인인 갈등관리행동은 연인관계 유능성의 행동적 측면, 제 4요인인 불안감해소는 연인관계 유능성의 정서적 측면에 속한다.

표 6은 요인분석 시 사각회전을 실시할 경

표 5.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최종문항의 회전 후 요인패턴행렬표

문항	요인				
	1	2	3	4	h^2
8. 나는 그/그녀의 취향이나 기호(좋아하는 음식·노래·영화 등)를 알고 있다.	.720	-.055	.016	.054	.519
13. 나는 그/그녀의 심리를 잘 파악하여 관계를 주도할 수 있다.	.593	-.219	.151	.163	.399
7.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그/그녀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589	-.145	-.117	.250	.387
48. 나는 그/그녀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그녀의 기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586	.154	-.067	-.066	.403
74. 나는 그/그녀의 미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508	.031	.132	-.105	.288
67. 나는 그/그녀의 사소한 변화도 알아차릴 수 있다.	.465	.294	-.108	-.202	.322
37. 나는 그/그녀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464	.088	.085	-.002	.311
26. 나는 그/그녀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 있다.	.364	.214	-.198	.175	.324
91. 나는 그/그녀의 친구나 가족들에 대해 알고 있다.	.339	.247	-.052	.023	.268
81. 나는 그/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007	.601	.136	.045	.486
36. 나는 아무리 바빠도 그/그녀에게 연락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043	.597	-.085	.078	.338
59.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그녀의 편이 되어준다.	-.017	.574	.015	.120	.415
46. 나는 그/그녀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들을 챙겨준다.	.150	.570	.000	-.037	.422
89. 나는 그/그녀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한다.	.156	.540	.037	-.109	.368
*80. 나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면 그/그녀와 헤어진다.	-.254	.429	.013	.323	.303
65. 나는 그/그녀에게 애정표현을 잘 한다.	.129	.386	-.102	.241	.357
30. 나는 그/그녀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나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110	.377	.267	-.118	.313
40. 나는 군입대나 이사 등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도 그/그녀와의 관계를 변함없이 유지한다.	.052	.338	.017	.212	.280
*82. 나는 그/그녀와 갈등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맞서는 편이다.	-.065	-.204	.645	.092	.363
*71. 나는 화가 나면 그/그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218	-.035	.628	.042	.356
44. 나는 그/그녀에게 자존심만을 앞세우지는 않는다.	.078	.038	.582	-.064	.363
15. 나는 그/그녀가 편하고 익숙해졌다고 그/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066	-.021	.569	.135	.431
19. 나는 그/그녀와 갈등을 길게 끌지 않고 먼저 사과하고 대화를 시도한다.	.097	.075	.480	-.010	.312
34. 나는 그/그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이나 사람들을 존중한다.	.093	.174	.464	-.049	.345
33. 나는 그/그녀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 칭찬을 많이 한다.	-.063	.279	.432	-.008	.336
60. 나는 내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197	.145	.398	.080	.419
*9. 나는 누구와 연애를 한다는 것이 불편하다.	.063	.164	-.133	.620	.493
*10. 나는 연애를 하면서 행복할 때보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더 많다.	-.038	.006	.133	.562	.382
*41. 나는 이성교제 할 때 내가 정말 그/그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설 때가 있다.	-.072	.182	.057	.554	.439
*24. 나는 그/그녀를 판단하는데 있어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042	-.107	.127	.552	.340
*18. 나는 그/그녀가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003	.209	.012	.497	.413
*1. 나는 데이트할 때 그/그녀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할지 부담된다.	.214	-.100	.005	.439	.266
고유치	8.596	2.439	1.705	1.518	
설명분산	26.863	7.622	5.328	4.744	
누적설명분산	26.863	34.485	39.813	44.557	

주. *은 역채점 문항임.

표 6.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최종 문항의 회전 후 요인 간 상관행렬표 ($N = 371$)

요인	1	2	3	4
관계효능감				
관계유지행동	.60			
갈등관리행동	.33	.46		
불안감해소	.47	.54	.44	

우 제시되는 요인 간 상관행렬로 .33에서 .60으로 요인 간 상관이 어느 정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표 7은 요인분석 후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요인타당도를 제시한 것이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34~.61($p < .001$)로 나타났고, 하위요인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 타당도는 .72~.87($p < .001$)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 간에 관련성은 있으나 서로 구분되는 구성개념이라는 것과 각 하위요인이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을 매우 적절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표 7.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요인 간 상관관계 및 요인타당도 ($N = 371$)

요인	1	2	3	4
관계효능감	.78***			
관계유지능력	.60***	.87***		
갈등관리능력	.34***	.49***	.72***	
불안감해소	.49***	.61***	.46***	.79***

주. 대각선의 값은 요인타당도 계수.

*** $p < .00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 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의 동질적인 개념을 평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총점에 있어서는 .91, 각 하위요인에서는 .77~.81로 나타났다.

둘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점수가 시간적 추이에 따라 얼마나 안정적인가

표 8.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n = 371$)	재검사 신뢰도 ($n = 61$)	반분신뢰도 ($n = 371$)
관계효능감	9	.80	.82	.77
관계유지행동	9	.81	.84	.82
갈등관리행동	8	.79	.80	.73
불안감해소	6	.77	.79	.77
총점	32	.91	.86	.82

를 살펴보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지 3주 후에 재검사를 하여 검사 점수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총점에 있어서는 .86, 각 하위요인에서는 .79~.84로 나타났다.

셋째, 척도의 총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상관관계를 구한 후 Spearman-Brown 공식에 의해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전체 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82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73~.82로 나타났다.

2.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관련 변인 연구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및 하위요인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하위요인은 문항수가 각기 다르므로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를 문항수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총점의 평균은 3.79이고, 표준편차는 .46으로 나타났다. 4개 하위요인별 평균의 범위는 3.73~3.87이었고, 표준편차의 범위는 .53~.65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별 평균점수는 관계유지능력($M = 3.87, SD = .6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관계효능감($M = 3.78, SD = .57$), 갈등관리능력($M = 3.73, SD = .53$)과 불안감해소($M = 3.73, SD = .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이 하위요인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성별에 따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은 연인관계 유능성 총점에 차이가 있었다($t = 2.54, p < .05$). 각

표 9.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 및 하위요인별 t 검증

연인관계 유능성	남 ($n = 140$)	여 ($n = 125$)	t
	$M (SD)$	$M (SD)$	
관계효능감	3.78 (.58)	3.78 (.55)	.07
관계유지행동	3.92 (.58)	3.81 (.61)	1.49
갈등관리행동	3.87 (.51)	3.56 (.51)	4.95**
불안감해소	3.83 (.65)	3.66 (.65)	2.19*
총점	3.85 (.47)	3.71 (.44)	2.54*

* $p < .05$. ** $p < .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갈등관리 행동($t = 4.95, p < .01$)과 불안감해소($t = 2.19, p < .05$)에서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 간의 관계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기의 낭만적 애착 중 불안차원은 연인관계 유능성 총점($r = .38, p < .001$), 회피차원은($r = .68,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과 연인관계 유능성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불안차원은 불안감해소($r = .44, p < .001$), 관계효능감($r = .41, p < .001$), 관계유지행동($r = .20, p < .01$), 갈등관리행동($r = .18, p < .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피애착은 관계효능감($r = .66, p < .001$), 관계유지행동($r = .60, p < .001$), 불안감해소($r = .57, p < .001$), 갈등관리행동($r = .27,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V. 논의 및 결론

1.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개발 연구

본 연구는 사랑을 다차원적인 구성요인으로 보는 견해에 입각하여 연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인 연인관계 유능성의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 유능성을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인관계 유능성의 인지적 측면은 자기이해뿐만 아니라 연인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인관계를 원만히 전개시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연인관계 유능성의 정서적 측면은 연인관계를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연인관계 유능성의 행동적 측면은 연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만약 갈등이 유발되더라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연인관계 유능성은 단순히 연

표 10.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 간의 상관관계

($N = 265$)

		연인관계 유능성				
		관계 효능감	관계유지 행동	갈등관리 행동	불안감 해소	총점
낭만적 애착	불안차원	-.41***	-.20**	-.18**	-.44***	-.38***
	회피차원	-.66***	-.60***	-.27***	-.57***	-.68***

** $p < .01$. *** $p < .001$.

인과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관계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서적 안정성이 포함되는, 연인관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관여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고, 각 요인을 관계 효능감, 관계유지행동, 갈등관리 행동, 불안감해소로 명명하였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구성하는 제 1요인인 관계효능감은 연인관계 유능성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낭만적 사랑을 할 때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연인과 관련된 정보 및 이성의 파악 능력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나 기대를 의미하며(Bandura, 1986, 1993),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긍정적인 성취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관계효능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연인을 파악하고 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연인관계에 관한 긍정적인 신념 및 기대로, 높은 관계효능감을 가진 개인은 연인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인에 대한 지식과 연인의 특성과악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연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Davila와 동료들(2009), Reifman(2011), Epstein과 동료들(2013)의 연구에서도 강조된 것이다. 또한, Berg와 Mcquinn(1986)의 연구에서도 연인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연인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연인

관계에 있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 개발 연구(양명숙, 전지경, 2004)에서도 연인관계 증진을 위해 자신 및 연인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었다. 이와 같이 관계효능감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처럼 성공적인 연인관계를 실천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사료된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구성하는 제 2요인인 관계유지행동은 연인관계 유능성의 행동적 측면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인에게 최선을 다하며 꾸준한 관심을 갖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대하는 능력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거리 및 부모의 압력과 같이 연인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극복하며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Gray(2008)는 진실된 사랑을 나누며 친밀한 연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연인의 행복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Dindia와 Canary(1993)에 따르면,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헌신적이며 친밀하고 만족스럽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성교제의 지속기간에 관한 평가는 이미 연인관계 유능성의 척도(Bouchey, 2007; Davila et al., 2009; Shulman et al., 2011)에서 다루어진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계유지행동은 연인관계에 있어서 관계의 안정성 및 만족도와도 높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강한 연인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연인관계는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이성관계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권석만, 2010).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족이념의 기초가 되었던 효의 사상(이광규, 1975)이 부모에 대한 완전한 예속성을 나타내주는 윤리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옥분, 정순화, 2014). 또한, 연인과의 물리적 원거리와 같은 외적 요인이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 아쉬움, 보고 싶음 등의 슬픈 감정들이 뒤섞여서 나타날 수 있다(권석만, 2010). 이처럼 연인관계에는 당사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적 요인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하면서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관계유지행동은 연인관계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구성하는 제 3요인인 갈등관리행동은 연인관계 유능성의 행동적 측면으로, 낭만적 사랑을 할 때 연인을 존중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만일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외에서 개발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Bouchey, 2007; Epstein et al., 2013)의 구성요인으로도 강조된 것이다. 연인관계는 친밀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서로에 대한 격식이 허물어지고 긴장감이 감소하여 자칫 상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인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존중이란 그 사람 자체의 중요성 및 가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연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연인의 정당함을 인정함으로써 연인의 바람과 요구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Gray, 2008). 일반적으로 연인 간의 갈등은 서로의 욕구가 성공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거나 서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유발된다. 따라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에게 양보하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갈등이 유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낭만적인 사랑을 하는 동안 연인 간의 갈등은 서로가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의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많은 대학생들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채 기존의 관계를 빠르게 정리하고 또다시 쉽게 다른 이성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며 미숙한 갈등대처의 태도를 되풀이하고 있다(오선영, 김영희, 2006). 연인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갈등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얼마나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갈등 자체가 관계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의 실패가 관계를 해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운, 박성실, 2011). 따라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또한 연인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구성하는 제 4요인인 불안감해소는 연인관계 유능성의 정서적 측면으로, 낭만적 사랑을 할 때 연인관계 및 연인에 대해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 개인이 관계를 형성할 때 경험하게 되는 정서들 중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심리적인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Salovey & Grewal, 2005). 특히 친밀한 관계에 있어 안정된 정서와 정서표현은 원만한 상호작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이다(Berscheid, 1983; Buck, 1989). 불안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연인에게 감정표현과 자기노출을 적게 하며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거나 피상적인 관계로 머물게 된다(박혜련, 손은정, 2012; 손은정, 박혜련, 2011; Davila & Beck, 2002; Sparrevoorn & Rapee, 2009).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은 친밀감 형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불안으로서(성정아, 홍혜영, 2014) 연인관계가 향후 몇 개월 만에 끝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Thelen, Vander Wal, Thomas, & Harmon, 2000). 표승연(2011)은 이성관계에서 경험하는 사회불안을 관계사회불안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성친구로부터 부정적 평가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성관계에서의 회피와 비주장성, 불편감은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사랑 및 결별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불안감해소 요인은 본 연구의 척도개발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자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났던 측면이다. 즉,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연애를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및 고민으로 현재 교제 중인 연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데이트할 때 상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연인과 함께 하는 시간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것을 자신의 한계점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면, 정서적으로 안정된 개인은 서로에

게 의지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고 각별한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없이 사랑을 할 수 있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아울러 연인을 가깝고 편안하게 느끼며 긍정적인 지지를 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것은 자기노출로 이어져 보다 긴밀한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한다(Sumter, Valkenburg, & Peter, 2013). 따라서 연인관계와 관련된 불안감을 해소하여 안정되고 편안하게 낭만적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연인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정서적 측면이라고 사료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관계효능감’, ‘관계유지행동’, ‘갈등관리행동’, ‘불안감해소’의 4가지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연인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정서, 행동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낭만적 사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에 잠겨 있는 대학생들에게 사랑을 할 때 갖추어야 할 능력 및 기술이 무엇인가를 숙고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반성을 통해 관계를 반추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 합치도인 Cronbach's α 계수, 재검사신뢰도, 반분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1, 척도 하위요인별 Cronbach's α 계수는 ‘관계효능감’ .80, ‘관계유지행동’ .81, ‘갈등관리행동’ .79, ‘불안감해소’ .77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가 .70을 넘으면 내적 합치도가 인정되므로(성태제, 1995) 본 연구의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인관계 유능성 점수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얼마나 안정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재검사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재검사신뢰도를 위한 시간간격은 일반적으로 피험자의 기억이 소멸되는 시간인 2주에서 4주로 설정하는데(성태제, 2005), 본 연구에서는 3주의 시간 간격을 두었다. 그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의 상관계수는 .86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요인별로는 ‘관계효능감’ .82, ‘관계유지행동’ .84, ‘갈등관리행동’ .80, ‘불안감해소’ .7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항을 반으로 나누어 반분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대학생의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 문항을 반으로 나눠 살펴본 경우는 .82, 하위요인별로 문항을 나눠 살펴본 경우는 ‘관계효능감’ .80, ‘관계유능행동’ .81, ‘갈등관리행동’ .79, ‘불안감해소’ .77로 나타나 인정할만한 수준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 문항의 검증을 통해 예비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대도수분포, 문항-전체 상관, 문항제거시 내적 합치도를 중심으로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문항 양호도가 높은 문항을 추출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단순히 수리적 결과에만 근거하지 않고 문항에 대한 개념적 중

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항을 선별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관련 변인 연구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연인관계 유능성 총점은 남학생 집단의 점수가 여학생 집단의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인관계 유능성 하위요인 중에서 갈등관리행동, 불안감해소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남학생 집단이 여학생 집단보다 하위요인별로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인관계에서 여성이 갈등을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행동을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곽소영, 손은정, 2008; Cancian, 1985; Levinson & Gottman, 1985), 여성은 남성보다 불안에 대한 심각성이 더 높으며(이주연, 하상희, 2012;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에 몰두하는 성향이 강하고(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성과의 친밀감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정윤경, 김재엽, 2005)는 연구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인관계의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의 산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성차별주의적 사고의 영향으로 인해(김정옥 등, 2007) 여성은 부정

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반면에 남성은 그 반대인 경향을 보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교육수준 및 사회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지위가 향상되었고, 자아개념 인식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지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오히려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남녀의 자아개념이 자기보고 방식으로 평가된 연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인관계 유능성이 우수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연인관계 유능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간의 관계

한 개인이 경험하는 사랑의 인지, 정서와 행동에 관한 능력을 이해하고자 사랑의 기원을 애착으로 보는 관점에 근거하여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낭만적 애착은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을 측정한 것으로, 불안 및 회피차원의 수준이 낮은 개인을 안정애착 유형으로 간주한다. 연구결과,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 및 하위요인과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인관계 유능성 전체와 연인관계 유능성 하위요인 중 관계효능감, 관계유지행동, 불안감해소는 낭만적 애착의 하위요인 중 회피

차원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낭만적 애착유형의 개인일수록 연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강진경, 1996;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장재홍, 2006; 홍성례, 2007)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김남희(2012)도 낭만적 애착에 따른 친밀감 두려움에 관한 연구에서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은 친밀감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불안차원과 회피차원 모두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낸 연구(김나리, 2001; 김예나, 김정택, 2008; 허선이, 2006)와 불안 및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연인관계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Banse, 2004; Cobb, Davila, & Bradbury, 2001; Meyer, Jones, Rorer, & Maxwell, 2015). Meyer와 동료들(2015)에 따르면, 불안 및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을수록 연인 간의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계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으며, 연인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불안차원보다 회피차원이 연인관계 유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은 유형의 개인은 사랑의 유형 중 정서적 몰입도가 적고 사랑을 놀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루두스 유형에 속하며(김예나, 김정택, 2008; Richardson, Hammock, Lubben, & Mickler, 1989), 친밀감 두려움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성정아, 홍혜영, 2014)는 연구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은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으로 설명되는 낭만적 애착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의 각 하위요인에 따라 관련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정애착 유형의 개인은 유연하고 복잡한 인지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 속에서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지만(Collins & Read, 1990), 불안 및 회피차원의 수준이 높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의 개인은 부정적인 애착 특성으로 인해 연인관계를 형성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전술한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연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국내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 척도는 연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선행적인 연구기반을 마련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는 사랑의 다차원적인 측면에 근거를 두고 연인관계 유능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인된 척도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청년기의 연인관계 유능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연인관계 유능성과 낭만적 애착 간의 관련성을 탐색한 것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표집대상을 국한시켜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의 대학생을 포함하고자 하였지만 청년기는 대학생이 아닌 20대도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연인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이므로 일방보다 양방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져야 연인 간의 상호 역동성 및 특성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자기 보고식의 평가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지각한 평가를 비교하여 다각적인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별 대상의 표집이 아니라 실제 교제 중인 커플을 대상으로 하여 연인관계 유능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연인관계 유능성은 연인과의 관계경험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반성하며 계속적으로 수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제기간이나 횟수, 그리고 연령 등과 같은 변인을 고려하여 연인관계 유능성의 발달과정을 장기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경 (1996). 아동기 어머니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성인기 사랑유형의 성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금주 (2010). 흔들리는 20대.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관계에서 심리적 욕구충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살. 서울: 학

- 지사.
- 김나리 (2001).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조절 기대치를 매개 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 (2012). 부모양육태도와 연애 두려움의 관계: 불안정 성인애착과 낮은 자아존중감 및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나, 김정택 (2008). 대학생의 낭만적 애착, 사랑 성향과 이성교제시 갈등해결 전략에 관한 연구. 인간이해, 29, 19-32.
- 김정옥, 박경규, 구향숙, 한동희, 류도희, 전형미, 이현혜, 이은경, 정복희, 김성희, 장보임, 엄인숙 (2007). 새로 보는 결혼과 가족 (제2판). 서울: 신정.
- 김종운, 박성실 (2011). 인간관계 심리학. 서울: 학지사.
-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성인 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12), 31-42.
- 박연정 (2008). 학령 전 아동의 학교준비도 척도 개발 및 학교준비도와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성정아, 홍혜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불안정 성인애착이 친밀감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87-412.
- 성태제 (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 성태제 (2005). 교육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손은정, 박혜련 (2011).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감정적 자기노출과 의사소통 방식이 친밀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시설회, 9(2), 17-26.
- 양명숙, 전지경 (2004). 대학생 커플의 관계 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 개발연구 (I)-한남 통합적 커플 프로그램: 우리 커플 이대로 좋을까요?. 상담학연구, 5(3), 561-582.
- 오선영, 김영희 (2006). 성인기 애착유형에 따른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1(2), 25-57.
- 이광규 (1975).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 이운기 (2006). 자아분화와 우리의식을 매개로 한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윤영, 전효정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성인애착유형과 사랑유형.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99-121.
- 이주연, 하상희 (2012). 부모 애착이 남녀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이성관계 태도의 매개 경로 분석. 상담학연구, 13(6), 2821-2837.
- 이지연,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

-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775-791.
- 장재홍 (2006). 이성교제의 경험, 애정관계 행동 및 성인애착 차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37-155.
- 정옥분, 정순화 (2014). 결혼과 가족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정운경, 김재엽 (2005). 부부갈등이 성인초기 미혼 자녀의 이성과의 친밀감 위협과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2, 71-104.
- 정태연, 최상진, 강진경 (2000). 성인기 애착특성과 낭만적 사랑 및 성격특성과의 관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85-102.
- 표승연 (2011). 이성관계에서 관계만족과 결별의도를 설명하는 통합인과모형의 검증: 조절초점의 부합도 효과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선이 (2005).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애착 및 갈등해결 전략의 차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 (2007). 낭만적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사랑유형의 관계. 한국가정학회지, 25(1), 169-18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nse, R. (2004). Adult attach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Evidence for dyadic configuration effect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73-282.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244.
- Berg, J., & McQuinn, R. (1986). Attraction and exchange in continuing and noncontinuing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42-952.
- Berscheid, E. (1983). Emotion. In H. H. Kelley, E. Berscheid, A. Christensen, J. H. Harvey, T. L. Huston, G. Levinger, E. McClintock, L. A. Peplau, & D. R. Peterson (Eds.), *Close relationships* (pp. 110-168). NY: Freeman.
- Berscheid, E. (1999). The greening of relationship science. *American Psychologist*, 54(4), 260-266.
- Bouchey, H. A. (2007). Perceive romantic competence, importance of romantic domains, and psycho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4), 503-514.
- Buck, R. (1989). Emotional communication in personal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interactionist view. In C. Hendric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0. close relationship* (pp. 144-163). CA: Sage.
- Cancian, F. M. (1985). Love, powe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kolnick, A. S., & Skolnick, J. H. (Eds.), *Family in transition: Rethinking marriage, sexuality, child rearing, and family organization* (pp. 219-230).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Cobb, R., Davila, J., & Bradbury, T. (2001).

- Attachment securit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role of positive perceptions and social supp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9), 1131-1143.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s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W. A., &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construction. In W. Furman, C. Feiring, & B. B. Brown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 123-147).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nger, R. D., Cui, M., Bryant, C. M., & Elder, G. H. (2000). Competence in early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family influ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224-237.
- Connolly, J. A., & Konarski, R. (1994). Peer self-concept in adolescence: Analysis of factor structure and of associations with peer experienc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4(3), 385-403.
- Davila, J. (2010). Romantic competence. The Corsini Encyclopedia of Psychology, 4, 1475-1477.
- Davila, J., & Beck, J. G. (2002). I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close relationships?. *Behavior Therapy*, 33(3), 427-446.
- Davila, J., Steinberg, S. J., Miller, M. R., Stroud, C. B., Starr, L. R., & Yoneda, A. (2009). Assessing romantic competence in adolescence: The romantic competence interview. *Journal of Adolescence*, 32(1), 55-75.
- Dindia, K., & Canary, D. J. (1993). Definitions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on maintain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2), 163-173.
- Donnellan, M. B., Larsen-Rife, D., & Conger, R. D. (2005). Personality, family history, and competence in early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3), 562-576.
- Doughty, S. E., Lam, C. B., Stanik, C. E., & McHale, S. M. (2015). Links between sibling experiences and romantic competence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4(11), 2054-2066.
- Epstein, R., Warfel, R., Johnson, J., Smith, R., & McKinney, P. (2013). Which relationship skills count most?. *Journal of Couple and Relationship Therapy*, 12(4), 297-313.
- Feldman, S. S., Gowen, L. K., & Fisher, L. (1998). Family relationships and gender as predictors of romantic intimacy in young adult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2), 263-286.
- Furman, W., & Wehner, E. A. (1994). Romantic views: Toward a theory of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G. P. Gullota (Eds.), *Advances in adolescent development: Vol. 6.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pp. 237-288). CA: Sage.
- Gray, J. (2008). *Why Mars & Venus collide:*

- Improving relationships by understanding how men and women cope differently with stress*. Harper Collins.
- Grover, R. L., Nangle, D. W., & Zeff, K. R. (2005). The measure of adolescent heterosocial competence: Development and initial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282-291.
- Harter, S. (1988).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adolescents*.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atfield, E., & Sprecher, S. (1986). Measuring passionate love in intimate relations. *Journal of Adolescence*, 9(4), 383-410.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11-524.
- Kim, J., Lee, Y., Suen, H., & Lee, G. (2003). A delphi study of young children's readiness in Korea: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early childhood schooling. *Educational Research and Evaluation*, 9(4), 345-355.
- Levinson, R. W., & Gottman, J. M. (1985). Physiological and affective predictors of change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85-94.
- Meyer, D. D., Jones, M., Rorer, A., & Maxwell, K. (2015). Examining the associations among attachment, affective state, and romantic relationship quality.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23(1), 18-25.
- Paetzold, R. L., Rholes, W. S., & Kohn, J. L. (2015). Disorganized attachment in adulthood: Theory,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romantic relationship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19(2), 146-156.
- Reifman, A. (2011). Romantic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Conceptual foundations. In F. D. Fincham, & M. Cui (Eds.), *Romantic relationships in emerging adulthood* (pp. 15-26).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D. R., Hammock, G. S., Lubben, T., & Mickler, S.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ttitudes and conflict respons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8(4), 430-441.
- Salovey, P., & Grewal, D. (2005). The sci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4(6), 281-285.
- Shulman, S., Davila, J., & Shachar-Shapira, L. (2011). Assessing romantic competence among older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34(3), 397-406.
- Shulman, S., Zlotnik, A., Shachar-Shapira, L., Connolly, J., & Bohr, Y. (2012). Adolescent daughters' romantic competence: The role of divorce, quality of parenting, and maternal romantic histor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5), 593-606.
- Sparrevohn, R. M., & Rapee, R. M. (2009). Self-disclosure, emotional expression and intimacy within romantic relationships of people with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7(12), 1074-1078.

- Sumter, S. R., Valkenburg, P. M., & Peter, J. (2013). Perceptions of love across the lifespan: Differences in passion, intimacy, and commi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7(5), 417-427.
- Tabachnick, B. G., & Fidell, L. S. (1989).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New York: HarperColins.
- Thelen, M. H., Vander Wal, J. S., Thomas, A. M., & Harmon, R. (2000). Fear of intimacy among dating couples. *Behavior Modification*, 24(2), 223-240.

1 차원고접수 : 2016. 11. 06.
수정원고접수 : 2017. 01. 08.
최종게재결정 : 2017. 03. 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Romantic Competence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Kim, KyoungMi

Chung, OckBoo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Romantic Competence Inventory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The Romantic Competence Inventory(RCI) is a self-report measure designed to assess competence in the romantic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During the initial development phase, the preliminary 100 items were construc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 pilot survey on the perceived romantic competence of 89 college students. Through expert review, 93 items were selected for the main survey. Three-hundred and seventy-one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main survey.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nd reliability analyse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a final set of 32 Likert-style items were selected for the Romantic Competence Inventory of college students. The RCI consisted of 4 subscales including *self-efficacy for romantic relationship*, *relational maintenance behaviors*, *conflict management behaviors*, and *overcoming relationship anxiety*. Second, the content validity of the RCI was supported by a group of experts and good construct validity was demonstrated using exploratory factor analyses. Also, high internal consistency, retest reliability and split-half reliability of the RCI were demonstrated using reliability statistics.

Keywords: romantic competence, college student, inventory development